

## 논공행상·구조조정 잡음에 팀워크 붕괴



‘디펜딩 챔프’ KIA엔   없었다

- ① 내부 경쟁
- ② 우승 효과
- ③ 타이밍

2009 한국시리즈 7차전은 최고의 명승부였다.

KIA는 한국시리즈 3연패에 도전했던 난적 SK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피발리는 접전을 벌였다. 5회 1-5까지 점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KIA 선수들은 근성과 자신감으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전력을 끌어낸 KIA는 결국 끝내기 우승의 극적인 순간을 연출해냈다.

12년만의 우승으로 KIA는 끈끈한 팀워크와 자신감이라는 큰 무기를 얻었다. KIA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챔피언

이라는 자신감 등 심리적인 ‘우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앞선 챔피언 SK와 삼성도 우승의 기세를 몰아 연달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한국

자신감·성취감 사라지고 전력 업그레이드 실패

한화 이적 장성호 갈등도 스토브리그 큰 상처

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다. 삼성이 2005·2006시즌의 패권을 가져갔고, SK는 2007·2008년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됐다.

KIA도 이런 상승세를 타고 2010시즌 무난히 4강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KIA의 우승을 이끌어냈던

탄탄한 선발진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신감과 성취감이라는 큰 무기도 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IA에게 우승은 한 순간의 달콤한 추억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느때보다 극적이었던 한해였지만 행운도 많이 따랐던 2009시즌, 우승 후 여기저기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우승의 여운이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2010시즌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할 때 뜻밖의 갈등으로 KIA는 흥역을 치렀다.

올시즌 들어서도 KIA는 승리의 유쾌한 경험을 있는데 실패했다. 시즌 시작과 함께 3연패에 빠지며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초반부터 오버 페이스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반반이 실패로 돌아갔다. 계속된 실패에 우승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사라졌다. 근성있는 플레이도 실종됐다.

끝내 반격의 기회도 잡지 못했다. 다른 팀들이 전력을 보강해 한층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KIA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점검에 실패했다. 당연히 전력 업그레이드도 이뤄지지 못했다. KIA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절치부심 2010시즌을 준비했던 팀들이 앞서나가면서 ‘디펜딩 챔피언’은 결국 4강 탈락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 8시즌 연속 챔프리그 출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8시즌 연속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았다. 박지성은 15일 오전(한국시간) 홈 구장인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레인저스(스코틀랜드)와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32강) 조별리그 C조 1차전에 선발 출전해 76분을 뛰고 0-0으로 맞선 후반 31분 마이클 오언과 교체됐다. 양팀은 끝까지 득점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 ‘수비의 달인’ 김종국 정든 그라운드와 작별

어제 두산과 홈 경기서 은퇴식

‘수비의 달인’ 김종국이 정든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종국이 15일 두산과의 홈 경기에 앞서 은퇴식을 하고 15년간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은퇴식에 앞서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만난 김종국은 “올 시즌 경기를 뛰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서 즐거분하다”며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좋은 선수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국은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된 은퇴식에서 KIA 김조호 단장으로 부터 순금 야구공과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조범현 감독도 유니폼을 벗는 제사를 위해 유니폼 액자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2루 베이스에 입맞춤을 한 김종국은 선수단의 행가례를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 은퇴식의 대미



는 김종국이 아들 준영군과 시구·시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김종국은 “이제 야구장에서 선수로서의 역할을 끝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과 영광의 순간들이 제 가슴에 남아있다. 지도자로 남아 어린 선수들이 용맹한 호랑이 같은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종 다승왕 막판 스퍼트

김광현·류현진과 16승 공동 1위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다승왕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KIA는 14일 안방에서 만난 두산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고도 4강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챔피언에서 5위로 추락해 버린 KIA지만 팬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 양현종이 이날 16승을 달성하면서 다승왕을 향한 불씨를 살렸다.

14일 양현종은 콜론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급히 선발 임무를 맡게 됐다. 초반 제구 난조로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기도 했지만 양현종은 11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7과 3분의 2이닝을 2실점(1자책)으로 막으며 3-2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14일 롯데전에 출격했던 SK의 김광현(16승)의 패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KIA의 경기. 그대로 KIA의 경기가 끝나면 양현종이 16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올라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9회초 아웃카운트를 하나 남겨둔

상황에서 불펜진의 난조로 2사 1·2루가 됐고, 두산 민병현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양현종의 승리가 날아가려는 순간, 홈에 들어오던 2루수자 유재웅이 갑자기 주춤했다. 유재웅이 발목과 무릎을 빼면서 홈 베이스를 앞두고 질척거리며 겨우 걸음을 옮겼다. 그사이 공이 홈에 도착했고, 유재웅은 태그 아웃됐다. 뜻밖의 행운으로 양현종은 승리를 지키며 다승 공동 1위에 복귀했다.

KIA에게 남은 경기는 5경기. 양현종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등판할 예정이다. 콜론의 갑작스런 부재로 14일 화요일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일요일인 19일 LG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6일 우천으로 취소됐던 한화와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승리 사냥에 나설 수 있다.

기대했던 태극마크를 달면서 부담감을 털어낸 양현종이 16승으로 힘겨투기를 하고 있는 SK 김광현, 한화 류현진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 KIA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수피아 여중·고 자매 동반 우승

추계전국남녀농구연맹전

광주고 남고부 준우승

수피아여중·고가 제40회 추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광주 수피아여고는 15일 광주 수피아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전북 기전여고를 82-75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승리로 수피아여고는 지난 200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챔피언에 등극했다. 27점을 몰아넣은 김지연과 함께 26득점으

로 팀 우승을 견인한 심성영은 MVP, 득점왕, 어시스트왕, 수비상 등 4개의 상을 휩쓸었다.

우승을 지휘한 도현성 감독과 김명희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수피아여중도 앞서 열린 여중부 결승에서 인천 인성여중을 50-40으로 꺾고 언니들과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 이선영은 득점상과 MVP를 거머쥐었고, 노완기 감독과 임웅수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남고부 우승에 도전했던 광주고는 서울 양정고에 77-86으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태리 소파 전문관 오픈

30%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9월29일까지

**Bastex 바스텍스 Brianform 브리안폼**  
**MAX DIVANI 맥스디바니 Chateau d'Ax 샤도닥스**

세계적인 이태리소파 전문관을 오픈했습니다. 바닥과 등받이가 침대처럼 확장되는 명품소파를 대중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칼라가죽, 뛰어난 복원력... 일반가구점은 흥스페이스 같은 수입원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30% 이상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신고서 확인)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주, 흥스페이스 가구빌딩(7개층/구도청 옆)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062)226-7565~7567

즉석 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